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2019. 12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2019 의원 공무국외 출장 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목 차



I. 출장 목적	1
II. 출장 개요	1
III. 기관 방문 내용	5
① 덴마크 오펜세 시청의 노인돌봄 (노인돌봄시스템)	5
② 치매 타운(Bryghuset)	16
③ 노인 케어홈	19
④ 자립형 노인주택 엘더보리	26
IV. 연수자 강평	31
V. 구정연계 방안	33

2019년 의원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진사례 학습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 의정활동에 접목하고자 출장 결과를 보고함

I 연수 목적

-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및 “노인 돌봄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호주의 노인복지 정책,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등 추진 현황을 조사·연구
- 의료·복지 통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덴마크 우수사례를 구정에 접목하여 [Vistation\(방문센터\) 도입](#)

II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9. 11. 11.(월) ~ 11. 17.(일) (5박 7일)
- 방 문 국 : 덴마크(코펜하겐, 오덴세)
- 방문기관
 - 오덴세 시청(Odense radhus)
 - 스벤보르그 치매 타운(Bryghuset)
 - 노인요양원 Lærkegaard Center
 - 자립형노인주택 엘더보리

○ 출장인원 : 16명(구의원 1, 공무원 8, 민간인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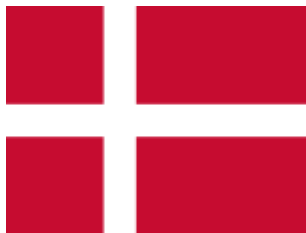
연번	구분	부서·기관	직급	성명	담당업무
1	서구의원	서구의회	의장	강기석	연수총괄
2	공무원	서구청	구청장	서대석	연수총괄
3	"	복지일자리국	국장	조승환	구성원별 임무 점검 및 종합 정리
4	"	복지정책과	과장	장기영	기관방문준비 및 기록 정리
5	"	통합돌봄추진TF팀	팀장	윤종성	기관방문준비 및 기록 정리
6	"	"	팀원	문지연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7	"	"	"	조미영	자료수집 및 보고서 작성
8	"	"	"	조인철	연수 예산 집행 및 결산
9	"	회계정보과	"	유은상	자료수집
10	민간인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민간전문가	정홍채	자료수집
11	"	빛고을건설	"	노종영	자료수집
12	"	실버마을	"	박성숙	자료수집
13	"	품앗이	"	박옥연	자료수집
14	"	효드림	"	정은주	자료수집
15	"	봄날재가	"	박현선	자료수집
16	"	봄날	"	김지수	자료수집

○ 주요 연수일정

일차	지역	시간	세부일정
1일차 (11.11)	광주 인천	오전	•광주서구청 → 인천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출발
	헬싱키 코펜하겐 오덴세	오후	•헬싱키 경유 •코펜하겐국제공항 도착 •오덴세 이동
2일차 (11.12)	오덴세	오전	•연수회의 및 토론
		오후	•오덴세 시청 방문 •치매센터 방문
3일차 (11.13)	오덴세 코펜하겐	오전	•주변 문화탐방
		오후	•주변 문화탐방
4일차 (11.14)	코펜하겐	오전	•노인요양센터 방문
		오후	•자립형 노인주택 엘더보리
5일차 (11.15)	코펜하겐	오전	•주변 문화탐방
		오후	•주변 문화탐방
6일차 (11.16)	코펜하겐 헬싱키	오전	•코펜하겐 출발
		오후	•헬싱키 경유
7일차 (11.17)	인천 광주	오전	•인천국제공항 도착
		오후	•인천국제공항 → 광주서구청

○ 방문국 정보


단마르크 왕국(Kongeriget Danmark)



국기



국장

표어	덴마크어: Guds hjælp, Folkets kærlighed, Danmarks styrke (신의 도움, 국민의 사랑, 덴마크의 힘)
국가	아름다운 나라
수도	코펜하겐  북위 55° 40′ 34″ 동경 12° 34′ 06″
정치	
공용어	덴마크어
정치체제	군주제, 입헌제, 민주제, 단일제, 의원내각제
여왕	마르그레테 2세
총리	메테 프레데릭센
역사	
건국	8세기경
지리	
면적	43,094 km ² (134 위)
내수면 비율	1.6%
시간대	CET (UTC+1)
DST	CEST (UTC+2)
인구	
2015년 어림	5,659,715명 (113위)
인구 밀도	129.16명/km ² (78위)
경제	
GDP(PPP)	2006년 어림값
• 전체	\$1,985억 (45위)
• 일인당	\$37,000 (6위)
HDI	0.901 (15위, 2012년 조사)
통화	크로네 (DKK)

Ⅲ

기관 방문 내용

【참고】

연수 내용은 현지에서 파악한 자료로서 방문기관 안내책자, 관계자 브리핑과 현지 통역사의 관계자면담, 현지도서자료, 현장조사 등으로 수집한 것임

1. 덴마크 오덴세 시청

- ▶ 방문장소 : 오덴세 시청(Odense radhus)
ADR: lakhaven 2, 5000 Odense TEL: + 45 66 13 13 72
- ▶ 방문일시 : 2019. 11. 12(월) 13:00
- ▶ 방문목적 : 덴마크 오덴세시의 커뮤니티케어 소개
- ▶ 면담자 : 건강복지국장 수완, 치매담당 크눌, 방문재활담당 티나



□ 오덴세 커뮤니티케어

< 담당자 설명 >

- 오덴세는 덴마크의 중간으로 20만명이 살고 있다. 덴마크의 98개 지자체 중의 하나이다. 인구의 40프로가 이곳 오덴세에서 살고 있다. 예산을 1.7백억 달러이다. 사회노인, 어린이집, 학교, 시계획, 고용, 문화, 축구, 예술을 보여주는 것을 많이 한다.
- 노인과 장애인 관리국을 보게 되면 노인쪽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11,500명이고 케어홈에서 사는 사람들이 1,300명, 방문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보면 6,620명이다. 1달에 집방문의 숫자는 29만번이다.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한다. 노인과 장애인 관리국 일하는 사람은 4천명, 예산은 3백 억 달러이다. 관리국에서 하는 일은 여러 가지이다. 홈케어, 간호, 청소, 재활담당, 영양원, 핸디캡, 정신질환, 집에서 노인이나 힘든 사람들 케어한다. 중간중간에 치매 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 제일 큰 도전이나 문제점은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자. 2000년도는 일을 하면서 돈을 보는 사람들 18세부터 64세는 4.5명이 노인 한사람을 케어할 수 있었는데, 2036년을 보면 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한다. 그림에서는 1947년에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경향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오래 살고 있다.
- 덴마크는 복지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모든 사람들이 복지시스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들이 있다. 연금 교육을 받을 때 나라에서 나오는 혜택이 있다. 교육이 무료이고 의료비가 무료이다. 복지모델이 잘 갖춰져 있다.
- 덴마크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렇지만 2036년은 2.5명이 돈을 벌어서 한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세금을 내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병이 있는 사람들을 재활치료를 해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 우리는 치료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다. 재활이라는 이미지를 보자. 재활과 임시라는 두 개의 단어가 키워드다. 평생 재활은 치료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임시로 해서 건강을 되찾게 해서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들은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독립적이어야 한다. 아픈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결정할 수 있는, 혼자 힘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게 이곳의 일이다.
- 그래서 재활을 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전에는 엉덩이를 다치고 다리를 다치면 도구를 주었는데 지금은 낮게 하는 거다. 그래서 도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 질의 응답 >

- 오덴세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 것인지, 그것과 별개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국가예산으로 하는지 궁금하다?
 - ⇒ 덴마크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없다. 대신 연금이 있다. 노인 돌봄서비스는 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 두번째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예산 부분을 충당하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 ⇒ 세금을 많이 낸다. 국장인 나의 경우 월급의 68프로를 낸다. 지자체에 내는 돈이 있다. 세금이 까다로워 한번에 설명드리기 어렵다. 세금은 지자체와 국가에 내는 것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국민들이 내는 땅세금도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회사의 법인세도 지자체에서 사용한다.
- 브리핑과정에서 방문해서 6천 6백명을 관리한다고 했다. 관리하는 노인에 대한 최초 선발기준과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케어하는지 궁금하다?
 - ⇒ 방문하는 사람은 6,600명정도 된다. 대상자 선정은 노인의 자녀가 지자체에 전화를 하는 방법 등이다. 화장실도 가기 불편하다면, 커뮤니티에서 사람이 보내져 파약을 한다. 그리고 서비스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를 도와줄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준다.

- 돌봄에서 일하시는 분이 4천명이라고 했다. 전체가 모두 시공무원인가? 우리는 31만명인데, 서구전체 공직자는 1천명이다. 학교는 별도이다.
 - ⇒ 오덴세 전체 지자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만 4천명, 노인과 장애인에서만 일하는 분이 4천명이다. 1만 4천명에는 학교 행정기관을 다 포함해서이다. 4천명은 노인과 핸디캡 관리국에서 일하는 직원 공무원들이다. 전체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1만 4천명이다. 총인구 17만명중 1만 4천명이다.

- 예산이 얼마인가?
 - ⇒ 예산은 3백달러인 달러이다. 노인과 핸디캡관리국 예산만 그렇다. 덴마크는 다섯개의 주가 있고 98개의 지자체가 있다. 시에다 세금이 있고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 있다. 우리식으로는 국세와 지방세이다.

- 이 비율이 얼마정도 되는가?
 - ⇒ 25프로를 지자체에 내고 나머지 75퍼센트를 나라에 낸다. 1퍼센트의 교회 세금이 있다. 덴마크 세금제도는 너무 복잡해서 덴마크 사람도 모른다.

- 당신은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이다. 덴마크 출산률이 2.3이고, 대한민국 광주 0.97이다. 출산율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 ⇒ 어린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정책은 없다. 일을 좀 덜 하도록 돕는 거다. 외국에서 많이 와서 일한다. 건물일 등은 동유럽 쪽에서 신경을 쓴다. 출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다.

- 시세와 자치세를 배분해서 말씀드렸다. 오늘 온 것은 이 나라가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어서다. 복지분야에서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 ⇒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

○ 이곳은 한국의 예로 보았을 때 장기요양보험이 없다. 요양시설 이용자의 소요경비는 누가 부담을 하는가?

⇒ 돈은 사는 노인들이 직접 낸다. 교육비와 의료비는 무료이지만, 요양비는 무료가 아니다. 본인들이 직접내고 집만 옮기고 케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다. 그렇지만 서비스 비용은 내지 않는다.

○ 천삼백명이 요양원에 있다는데 치매 어르신과 도와주는 어르신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1명당 도와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 이 내용을 이어서 설명 드린다.

□ 오덴세 치매노인 관리

< 담당자 설명 >

- 노인 장애인 관리국에서 일을 하는 쿠닐이다. 치매쪽으로 담당을 한다. 치매 발전 전략 제공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 치매 오덴서 그래프를 보면 2013년에서 2040년 전세계적으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나이든 노인들이 오래 사는 것을 손님들이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 빨간게 여자, 파란게 남자인데 그래프가 올라간다. 2019년을 보면 3천명, 29년에는 5천명을 예상한다. 17년 60세이상 4만 4천명인데 그중에 2천800명, 24년에는 노인인구 치매환자도 늘어난다.
- 2020년에는 3천명으로 생각한다. 5년후에는 500명이 늘어날 거다. WHO기관의 예측이다. 하지만 이숫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초기치매환자는 포함이 안 될 수 있어서 더 많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더 늘어난다는 거다.
- 그래프를 보면 55프로가 초기단계이다. 55프로는 치매초기이지만 행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32프로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사람 집에 방문해서 도움을 주던지 시설에 옮겨서 도움을 주던지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13프로는 모두다 홈케어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점점 치매 환자들이 살아야 될 지역이 10년 안에 더 많은 1,150가구가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다.

-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전략을 표시했다.
 - 집에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치매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 첫번째다.
 - 두번째는 치매환자들에게 필요한 자문서비스, 운동공간, 치매를 위한 시,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자문도 해준다. 치매환자뿐 아니라 힘든 가족에게 역할을 한다.
 - 세번째는 그들이 육체적인 것,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제공, 식사, 치매환자들의 감정 예방 치료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 놓았다.
 - 1은 치매가 완전 초기인 사람들 커뮤니티 공공장소이고
 - 2는 조금 더 중증이다. 자문이 필요한 것들이 나열되어있다.
 - 3은 치매 환자들이 집에서 사는 파트이다.
- 친치매 오티센은 두 개의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커뮤니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구역을 만들고, 예를 들어 수영장이나 도서관, 가게 교회에서 같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치매환자들이 도시를 편안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배려를 해놓았다.
- 다음 주제는 치매 친구이다.
 - 치매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대하나, 어떻게 대처하나를 알려주는 상식코스가 있다. 치매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지자체, 치매 유니온과 함께 담당을 해서 하고 있다.
 -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치매를 가진 사람을 끌어 올릴 수 있는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치매 친구가 되어주는 지식은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행동의 변화에 대한 대처 지식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로 일하는 강사는 치매 친구들이다. 가족일 수도, 목사일 수도, 학생일수도, 도서관, 자문쪽에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두명의 치매환자가 함께한다. 적십자 자문을 맡은 사람이 있다. 사회건강부 제약쪽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 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
 - 치매환자들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사는 동안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을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자문들이

자문을 해준다. 이런 자문들은 그들이 사는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도시안의 장소에서 만남을 가져서 장소를 얻기도 한다. 그래서 기관방문을 바치고 스펀보를 가서 자세히 볼 수 있다.

- 치매환자 자문도 있지만 물리치료 재활을 하는데 이런 것을 치매시티에서 볼 수 있다.
 - 이 외에 활동을 많이 하는 하우스가 있다. 여기가면 여러가지 음식도 같이 먹고, 전에 병원이었던 것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하우스에서 일주일에 세,네 번정도 같이하고 있다.
 - 자원봉사 조직에서 하는 캘러롭에서는 자문 컨택센터가 있다. 노인체육공간이 있다.
- 노인모션을 할 수 있는 하우스는 가족들이 같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조직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참여는 치매 유니언등 관계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
- 힘들 때는 중증인 경우는 홈케어로 간다.
 - 치매케어 홈은 사는 동안 본인들이 돈을 낸다. 그래서 사실은 사는 집에서 다른 집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돈을 내고 돈이 없다면 정부에서 제공한다.
 - 요양원 노인은 대부분 치매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치매에 대한 상식이 없이는 안된다. 1년에 15번정도의 발표나 교육이 있다. 치매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어떤 치매인지, 어떤쪽인지, 지식, 사람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을 전문적으로 배운다. 치매환자와 이야기 할때 뭘 하고 살았으며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치매환자들은 빛에 민감하다. 빛이 두뇌를 자극한다. 식사도 중요하므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음식인지도 중요하다.

< 질의 응답 >

- 친치매 오펜세 치매 친구는 좋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예방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 치매는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다. 치매예방, 치료보다는 도와주도록 하는 거다. 언제 치매 요양원으로 오는지는 그들이 결정을 하는 거다. 예방이란 것은 따로 중점적으로 예방은 없다. 치매 요양원까지 오기 전까지 즐겁도록 편하게 해주는 거다. 그래도 예방을 생각한다면, 치매의 여러가지 요소가 있어서 치료예방에 관해서는 힘들다. 도와주는 쪽이다.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다.

- 치매커뮤니티조성, 여러유니온이 도와주는 것, 강사로 해서 치매환자를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말씀드렸다. 이런 환자들이 운동하는 공공장소, 초기 자문 함께 일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이 예방으로 생각한다.
- 치매에 대해서는 왜 걸린다고 나온 것이 없다. 담배 술 등으로 인한 것은 나와 있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식이다. 치매가 안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없다.

○ 치매걸린분 모두에게 약을드리는 가?

⇒ 약으로 인해 유지가 되거나 좋아지는 것은 있지만 낫는 것은 없다. 하나의 처방은 운동이다.

○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가?

⇒ 20년 되었다. 이 전략은 5년이 되었다.

○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게 몇 프로 정도인가?

⇒ 대부분은 지자체이다 오덴세는 두 군데가 개인이 한다. 20개의 요양원 중에 두 곳이다.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제공한다.

□ 재가 방문 및 재활

< 담당자 설명 >

- 방문팀에서 한달에 29만번을 방문한다. 하루에 1번을 방문을 한다.
- (그들이 모두 공무원인가. 요양센터에 근무하는 분들도 포함해서 4천명의 공무원이라고 했는가)- 방문하는 사람들은 간호사들이다. 물리치료를 한다던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준다. 간호사는 아니지만 이것에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지자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 간호사와 물리치료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판단을 한다. 먼저 방문을 하는지, 안하는지 판단을 한다. 그리고서 방문을 시작한다. 한 달에 29만 하루에 1번이다.
- 재활 운동쪽이다. 치매도 되고 다친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보인다. 이곳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를 한다. 보시면, 어떻게, 왜 하는지 그 사람을 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가고 평가를 한다.
 - 재활은 치료를 받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의무감 있게 해야 하고, 여러 대화에서 평등이 있어야 한다.
 -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펜세 지자체에서 4천명이 일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코스를 밟으면서 지식을 쌓고 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목표가 되는 거다.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다. 받는 사람의 목표가 “나는 침대에서 도구 없이 혼자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그 목표를 중점적으로 재활을 해준다. 재활 쪽은 당사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한다. 원하는 게 뭔지 도와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해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민협의회가 있다.
 - 99명의 시민들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있다. 시민협의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협의회가 2019년에 노인정책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해왔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을 설명했다.

- 시민패널 사이트에 원하는 경우 누구나 가입을 하고 원하는 바를 써서 보낼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노인들과 같이 살기 원하는 가족들이 있었다.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직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런 조사가 있었다.
- 그리고 여론조사 중에 축구장이나 콘서트에 담배를 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다. 시민들과 같이 미팅장소를 시민협의회가 마련을 한다. 이곳에서 지난 월요일에도 개최되었다. 치매를 걸린 사람을 데리고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이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면이 여기 사진으로 나와 있다.

< 질의 응답 >

- 덴마크는 인터넷 검색을 하니 요양시설을 허가 안해준다고 한다. 국영화, 공영화 하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서 많이 이용하는데, 민간이 축소될 수도 있을거다. 이때 민간의 반발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요양비를 개인이 부담한다면 ?

⇒ 67세가 되면 나라에서 받는 기초연금이 있다. 혼자 살면은 13,200크로네를 받고 둘이 살면 20,000크로네를 받게된다. 이 돈으로 요양원에서 사는것과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다.

- 당신이 근무하는 곳이 노인장애인 국이다. 예산이 35억 밀리언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곳에서 노인돌봄에 포함된 사업이 얼마이고 예산 중에 덴마크와 지자체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 지자체의 예산은 1.8빌리어드 달러이다. 학교나 길이나 도로나, 고용이나 문화를 모두 사용하는 예산이 그렇다. 노인국에서 그중에 노인장애인국의 예산은 3백밀리온 달러가 예산이다. 한국으로 보면 2조의 예산이 들어간다. 노인과 관련한 예산이 6천억이다. 퍼센트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돈은 무조건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만든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오던, 지방에서 오던, 어디에서 오던 중요하지 않다.

○ 그 차이가 시세와 지자체 세금을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국가가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많아야 하는데 국가가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노력이 부족하다.

⇒ 우리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노인은 점점 오래 산다. 지자체에서 세이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부족해서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을 1밀리언 달러를 노인복지 예산으로 전환을 했다.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재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오펜세가 노인주택을 운영 중인가?

⇒ 지자체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회사가 분양해서 대기 순서를 밟아서 차례가 되면 들어가는 것이다.

○ 하루에 한번, 한달에 29만번 방문한다고 한다.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고 관리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가?

⇒ 간호사나 방문하는 사람이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다. 방문자 이름을 적고 작성하는 것이 있다. 덴마크는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하는 법이 있다.

○ 이게 오펜세에 독특한 것인지 덴마크에 해당하는 것인지?

⇒ 법으로 되어 있어서 모두가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민감한 정보를 알리면 안된다. 그래서 종지로 남길 수 없으므로 모두 데이터로 작성되어야 한다. 보는 사람은 기관에 일하는 사람만 보게 되어있다.

○ 지금 커뮤니티사업을 한다. 나타난 문제점을 제시해주라.

⇒ 문제점은, 치매와 재활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깊숙하게 지식을 넣는게 힘들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도큐멘테이션을 만드는 것,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도 문제점이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계속하기 때문에 알리고, 따라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 시민협의회를 구성하는 사람은 어떤사람인지, 순수하게 자발적인지 지자체가 관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노인장애인등 어느정도 전문가 아니면 분야 등의 기준이 있는가?

⇒ 시민의회 멤버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99명은 아무나 될 수 있다. 시민 협의회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시민의회는 1년정도 생각하는 과정이다. 시민협의회는 임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이게 민주주의 참여이다. 머리로 학문을 깨우친 사람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각자 전문 영역에서 참여한다.

2. 치매 타운(Bryghuset)

- ▶ 방문장소 : 치매 타운(Bryghuset)
ADR: Bryghusvej 2, 5700 svendborg TEL: +45 62 23 41 23
- ▶ 방문일시 : 2019. 11. 12(월) 15:30
- ▶ 방문목적 : 덴마크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프로그램 벤치마킹
- ▶ 면담자 : Irma(재활치료 담당) 등 2명



□ 치매타운 운영안내

< 담당자 설명 >

- 물리치료 담당 재활 담당이다.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왜하는지 말씀드린다.
- 이곳에서 운동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좋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여러 가지 물리치료를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삼십분에서 한시간 한다. 두뇌에 관련된 것은 일주일에 두 번, 사십오분씩 제공하고 있다.
 - 몸으로 하는 것은 컨디션 강해질 수 있다. 균형 맞추는 것, 행동과 리액션을 치료한다.
 - 여기에는 참여자가 6개 그룹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코스는 4개월로 되어있다. 대부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로 친해진다.
- ICT기술이 활용된다. 한시간 반동안 운동을 하면 화면을 보는 치료를 한다.

- 미국 대통령을 사진으로 올리고 누구인지 맞추는 것이다. 이것을 올려놓고 질문으로 던지기도 한다. 어르신은 단어를 섞고 그림을 섞어서 찾는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묻고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한다.
- 두뇌를 발달시키는 과정을 4개월동안 마치면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족이 참여하는 계획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것을 함께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계획을 세우게된다.
- 센터 단독으로 일하는 게 아니다.
 - 노인 유니온. 체조쪽으로 활동하는 유니온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한다. 당사자에게 뭐가 좋은지 여러 관점에서 찾아서 실행을 한다.
 - 시범을 한, 두가지 보여드린다. 시범을 보이는 이 활동을 처음에는 아무도 한번에 하지 못하지만 4개월이 지나면 모두다한다. 중국사람들이 하는 운동 비슷하게 공을 들고 공의 윗방향이 하늘을 향하게 한 바퀴를 도는 거다.
 - 균형을 맞춰주는 운동이다. 뒷발을 두고 무릎을 꿇었다 드는 과정이다. 처음에는 어렵게 하다가 4개월이 지나면 모두 다한다. 말랑말랑한 바닥에서 운동은 몸의 균형을 강화한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단계를 올려서 발전하도록 한다.

< 질의 응답 >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것을 한다. 서구는 경로당 같은 데에서 하고 있다. 이런 센터가 몇 개나 되는가?
 - ⇒ 여기는 초기 치매쪽이다. 카테고리가 여러 곳이 있다. 그렇지만 이런 구조의 센터는 이곳뿐이다. 중증인 경우는 시티하우스에 가면 이런 액티비티가 있다. 그곳은 음식을 만드는 구조가 되어있다. 케어홈도 트레이닝 한다. 이곳 말고도 다른 곳. 심지어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다.
- 이용 비용은 사용자가 내는가?
 - ⇒ 참여비용은 모두 무료이다.

○ 시간이 어떤가?

⇒ 여기만 4개월로 프로그램을 짰 교육이다. 다른 곳은 멤버십으로 그곳의 과정에 따라서 길게 사용한다. 여기 코스를 밟은 이후에 사람들은 치매 치료를 위해 트레이닝 센터에 가서 자유롭게 트레이닝을 한다.

○ 자체에서 치매환자를 등록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곳은 없는가?

⇒ 치매센터 이용은 개인이 지자체에 연락을 해 이쪽으로 보내주어서 코스를 밟는 거다. 한달에 24명이 이용한다. 그룹을 6그룹인데 한 그룹에 한명이 돕는다. 한 그룹에 4명이다. 오전, 오후 구분해서 추진한다. 숫자가 적어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좋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눠서 진행한다.

○ 치료효과는 어떤가?

⇒ 55%는 원래보다 나아졌고, 나머지는 유지하는 것이다. 가족들이 말하기를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한다.

○ 우리 치매 안심센터에도 이곳의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본인이 짚은 화면을 가지고 와서 자전거를 타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 그런가. 어르신들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활동에서 효과를 얻기도 한다.

3 노인 케어홈

- ▶ 방문일시 : 2019. 11. 14(목) 10:30
- ▶ 면담자 : Helle(관리자) <https://herlev.dk/plejecentre-i-herlev-kommune>
- ▶ 방문목적 : 노인의 존엄을 살린 서비스 제공현장 학습



□ 1차 공동생활 공간 안내

< 담당자 설명 >

- 이곳은 치매와 홈케어를 하는 곳이다. 이 집은 재활을 위해 재가노인이 주간에 참여하고 임시거처를 하는 곳이다.
- 현재 이곳에는 16명이 살고 있다. 앞에 보이는 분들은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다.
- 이곳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룹이 6개로 나뉘어 있다. 한 그룹당 8명이 생활한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방이 아니다. 그중에 한 그룹이 치매 쪽이다. 많은 노인

들이 조금씩 치매가 있는데 이곳은 종종 치매 지역이다.

- 그룹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씩 있다. 큰 로컬은 공통으로 사용한다.
-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새나 토끼를 기른다 이런 활동을 좋아한다.
- 치매 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 이 공간은 사는 사람들이 뿐 아니라 외부인들이 이곳에 와서 얘기도 나누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 이곳에는 현재 다섯분이 더 사용하고 계신다. 발코니가 크게 있고, 날씨가 좋으면 사용하는 60명이 정원을 이용한다.
- 이곳은 9시 반에 오픈해서 두시에 닫는다.
 - 이 외 시간은 외부 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이다. 한달에 10유로 한국돈 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비용으로 거의 공짜이다.
 - 이곳에서 점심도 먹고 많은 활동을 한다. 가족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픽업을 해서 모시고 가는 형태다. 어르신은 일주일에 두,세번정도 온다. 여기 직원들은 건강을 관리해주는 분들이다.

< 질의 응답 >

- 이곳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 ⇒ 여기오시는 분들의 치매 상태에 따라서 활동이 달라진다. 이곳에서 게임 같은 것 퍼즐 맞추는 형태를 많이 한다. 과거를 상기시키는 사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옛날 것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게임도 한다. 주변의 많은 숲을 이용한 산책도 한다. 버스로 이동을 하고 식물을 공동으로 가꾸는 활동을 한다. 비용은 집에서 거주하는 노인이 일주일에 두 세번 내고 한달에 10유로를 낸다.
- 집에 오지 않는 기간에는 누가 케어를 하나?
 - ⇒ 혼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부가 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 혼자인 경우도 책을 읽는다던지, 평소 혼자 하던 일을 하다가 온다. 우리는 한달에 한번정도 활동사항을 책자로 만들어서 제공한다.

□ 2차 치매그룹 안내

< 담당자 설명 >

- 여기는 중중이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통제된다. 이곳에서는 어르신이 사시는 것을 가깝게 보는데 방을 들어갈 때는 몇 분만 들어간다.
- 한 그룹당 8명만 산다. 이곳은 8명의 치매 그룹이다. 이 구조는 다른 그룹보다 더 큰 공간이다. 쇼파에 앉아 있는 것은 많이 피곤해하기 때문이다. 이곳 공간은 15평정도이며, 큰 편은 아니다.
- 생활하신분의 이름이 카린이다. 이용비용은 한달에 7천 크로네이다. 한국 돈으로 120만원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렌트비라고 한다. 식사와 전기세, 물세를 모두 제공하는 거다.
- 덴마크는 노인이라고 해서 싸게 들어가는 것이 없다. 개인 부담 원칙이지만 부족할 경우 국가에서 일단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알아서 필요 시설을 이용하라는 거다. 기초연금은 한명 당 8천 크로네를 받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없으면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 크로네가 넘을 수도 있다.
- 광주서구의 방문을 잡지에 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자. 잡지가 나오면 보내주겠다.
- 하나를 더 보여준다. 이번에는 보통방이다. 창문이 많아서 채광이 좋다. 책상을 보라. 방별로 본인들이 쓰던 물건을 가져온다. 사람 냄새가 어르신 냄새가 나지 않는데 비결이 무엇일까. 욕실이 전반적으로 크다.
- 사무실이 중간중간 있는데 어르신이 배회할 때 관리가 된다는 거다. 창문이 넓다. 좋은 채광은 건강 암세포 확산 방지에 효과가 있고, 행복감에도 영향이 있다. 누구나 이런 곳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 안에 의사가 있다. 진료에 방해하지 말자. 침대가 폭신하는 이유는 욕창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거다. 혼자서 못 일어나는 경우 리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사람 형편에 맞춰서 기계를 사용한다.

< 질의 응답 >

- (시설을 찾아온 노인과 인터뷰) 당신은 건강해 보인다. 어떻게 왔는가?
 - ⇒ 저기 누워있는 사람이 남편의 동생 시누이다. 언니를 보기 위해서 방문해주었다. 우리는 45년동안 항상 같이 생활했다. 걸어가면 1분정도 되는 곳에서 살았다. 이분을 12살 때부터 알았다. 우리 두 명이 원래 친구 였는데, 오빠가 낚아채서 결혼을 했다. 오빠는 우리보다 6살이 많았다. 절친한 사이이다. 시누이는 치매가 있어서 이곳에 있다. 나는 매일 오는 편이다.
- 자세하게 설명해주어서 감사하다. 어느 나라나 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우리는 잘하는 덴마크를 배우러 왔다. 함께 오신 분은 지자체도 있지만, 시설원장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물어볼 수 있다. 잘 답변해주시라. 여기는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광주는 시설을 민간이 운영한다. 이분들이 물어 볼거다.
 - ⇒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내지만 이 돈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다. 덴마크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살 자격이 있는데 돈이 없으면 지자체에서 도와준다.
- 8명이 사는 생활시설은 몇 명이 서비스를 하는가?
 - ⇒ 치매그룹은 낮에는 3명. 밤에는 2명이 서비스를 한다. 새벽에는 1명이다. 1대1이라고 할 수 있다. 치매 아닌 곳은 낮에 2명, 밤에는 1명, 새벽에는 1명이다.
- 전체적인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 여섯개의 그룹이고 한 그룹당 7명씩 생활한다.
- 이 중에 치매까지 시설로 들어온 분들은 몇 명이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몇 그룹인가?
 - ⇒ 이곳은 총 50명이 살고 있고, 이 중에 4명은 부부이다. 치매 쪽은 8명이 산다. 보통 케어홈은 40명이 산다. 이곳을 잠시 사용했다가 나가는 분은 16명이다. 로컬 6명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3시까지 이용한다.

로컬 6명은 2명이 케어한다. 이분들은 심한 사람이 아니어서 집에서 왕래를 하는 상황이다.

○ 어르신들이 생활하면서 안 좋아 질 거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활을 하시는가?

⇒ 그런 상황도 있다. 우리는 4년 안에 만들어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런데 분산된 것을 합쳐서 225명이 같이 사는 곳을 준비한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케어홈이다.

○ 오덴세에서는 치매센터. 운동하는 곳을 다녀왔다. 그런 운동센터와 이곳이 연계가 되어 있는가?

⇒ 이 건물안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 재활은 이곳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

○ 코펜하겐에 치매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규모의 시설이 몇 개나 되는가?

⇒ 전체 코펜하겐은 모르겠다. 헤알로 지자체는 세 개의 센터가 있다. 코펜하겐은 이곳과 같은 시설이 총 65개가 있다. 우리지 자체는 규모가 3만명이다.

○ 직원들이 친절한데 기관이 추구하는 핵심가치가 있는가?

⇒ 우리가 추구하는 중점 가치 중 하나는 “사는 사람들이 잘 살도록 케어 해주는 것, 최고로 편하게 최고로 즐겁게 사는 것을 돕는다.”이다.

○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간호사인가 복지사인가?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풀타임을 합쳐서 60명의 직원이다. 사회, 건강, 간호의 학문적 배경이다. 보조원이 있는데 이분들도 모두 자격이 있다.

○ 시설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료서비스는?

⇒ 방을 돌아볼 때 침대가 빈자리인 경우는 의사에게 간 사람들이다. 의사가 주기적으로 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 방문 한다. 개인 의사, 주치의를 불러 주

라면 그 의사가 온다. 주치의 의사의 비용은 무료다.

- 시설을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근무직원이 파견인지, 법인을 만들어서 채용한 사람인지 궁금하다?

⇒ 이곳의 종사자 60명이 모두 공무원이다. 이분들은 지자체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이곳에서만 전문적으로 근무한다. 전문성은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면 월급이 세진다. 보통 이런 곳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보건 쪽은 3만 5천크로네에서 3만 크로네를 받는다. 나는 4만 2천 크로네 받는다. 한화로는 세전 약 7백 2십만원이다. 세금은 50프로, 37프로이다.

- 규모가 3만 3천이면 작은 지자체다. 우리는 35만인 지자체이다. 우리는 18개 동 또는 5개 권역을 분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생각한다. 전체 코펜하겐 모두가 독특하게 운영되는가?

⇒ 여기는 크게는 코펜하겐시지만 지자체는 헤알로 지자체이다.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온다. 우리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만들고 별도로 어르신이 살 수 있도록 한다. 보건소는 예방측면이고, 살고 있는 것은 민간 영역이다.

- 지역에서 필요한 경우 집을 고쳐주는 역할은 어떻게 하는가?

⇒ 가족들이 있으면 도와주지 않고 없으면 도움을 준다. 그 페이는 기술자에게 보통사람이 내는 것과 같다.

- 입소를 하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 노인이 힘들어서 오는데 자리가 없을 경우 안 된다.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법으로 되어있다. 대부분 임시거주를 할 수 있는 거주처가 있다. 지자체는 항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 예상하기에 노인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서 대형시설을 만 들어가는 거다. 이곳도 앞서 말한 225명을 수용하도록 시설증축에 참여한다. 이 장소가 어떻게 뭐로 될지 모르겠다.

○ 그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케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 지자체에서는 두명의 간호사.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이분들은 치매쪽이다. 이 분들이 75세가 넘는 어르신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집을 방문한다. 밖에서 오신 분들을 보았는가. 이분들은 75세 이상 데이센터로 오신 분들이다. 이분들은 올 자격이 있는 분들이다. 방문해서 어떤 상태인지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다. 덴마크는 지자체 모두 있다. 이분들이 방문해서 평가한 다음 오게한다. 이게 75세 이상이다. 정정한다. 데이센터는 누구나 오는 게 아니라. 치매기가 있으면 올 수 있다. 75세가 지나면 법으로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간호사가 방문한다. 75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75세 된 날부터 이곳에서 연락을 하고, 방문을 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질문을 한다. 잘 알아서 하는 노인도 있지만 치매기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들어간다. 법은 예방 차원으로 되어있다.

4. 자립형 노인주택 엘더보리

- ▶ 방문일시 : 2019. 11. 14(목) 14:00
- ▶ 면 담 자 : Knud Eriksen(대표자) 등 4명
- ▶ 방문목적 : 노인공동 생활가정 운영 및 노인주택 공급



□ 엘더보리 입구 안내

< 담당자 설명 >

- 브리핑을 받기 전에 먼저 돌아본다. 이곳은 노인들만 모여산다. 직접 케어하는 곳이 없다. 지역이 세 세션으로 되어있고, 중간은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 여기 공사는 이름이 3B라는 회사였는데 몇 년후 KAB 안으로 들어갔다. 덴마크에서는 KAB 업체가 이런 노인주택 공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공사 장소는 많다.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다. 먼저 첫번째 집을 방문 해보자

□ 노인주택(1)

< 담당자 설명 >

- 덴마크는 인테리어가 발달된 나라이다.
 - 이곳 노인들이 생활하는 집은 30평정도 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곳도 33평 정도다. 보통 거실, 침실, 화장실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특징은 공간마다 문턱이 없다는 거다.
 - 처음 열린 방은 일하는 곳이다. 이 방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본다. 뒤에는 안방이다. 안방의 벽에는 결혼 60주년 축하 액자가 있다. 우리는 젊어서 여행을 많이 다녔다. 여기 오래된 삼성냉장고에 붙은 마그네틱은 여행기념으로 사온 것이다. 냉장고에 더이상 붙일 곳이 없을 만큼 많이 다녔다.
 - 벽의 장식장에는 덴마크가 자랑하는 로얄코펜하겐 그릇이있다.
- 이곳에서 생활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생활을 하고, 같이 밥먹는 것은 일주일에 한번이다.
 - 처음 들어올 때 30만 크로네를 내고 다달이 월세로 8200크로네를 낸다. 이 비용은 공동으로 물세, 전기세가 모두 포함된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월세 150만원이다.
 - 이분들은 기존에 살던 집을 팔아서 들어왔다. 그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국가에서 추가 비용을 대준다. 국가에서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곳을 평등으로 해서 보장해 준다. 덴마크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회이다.
 - 집안의 생활용품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쓰던 것들이다. 젊어서부터 사용하던 가구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다.

- 집들은 모두 특색이 있다.
 - 내부 구조가 같은 것이 없다. 집을 지을 때 살 사람이 정해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지어주었다. 사용자도 참여를해 이 건물이 세워졌다.
 - 덴마크는 집을 지어서 렌트를 해주는 회사가 있다. 이곳은 3B라는 회사가 건축을해 집을 제공해 주었다.

< 질의 응답 >

- 이 집도 크누두선생이 요구해서 지어진 건가?
 - ⇒ 5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비통은 싫다고 했다. 비통은 시멘트다. 그리고 큰 창문을 원했다. 그리고 높은 천장을 요구했다. 집을 짓는 과정에 이런 식으로 참여했다. 부엌의 위치도 우리가 요구해서 뒤편으로 왔다.
- 이곳에 거주하면 보건소에서 파견한 비지팅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오는가?
 - ⇒ 생활하는 분들의 연령은 최소 70세, 최고 90세인데 나는 85세이다. 오늘 이곳에서 몇 시간 전에 노인 1명이 돌아가셨다. 밖에 걸린 덴마크 국기가 반기로 되어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가까운 이웃이었던 분이 오랜 투병을 마치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옆동 사람을 체크하면서 아프면 전화해주고 서로 챙긴다. 그리고 월요일에 저녁식사를 한곳에서 모이면서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족이 내는 것은 10제곱미터 면적의 임대료이다. 90제곱미터가 집이다. 공동의 10은 공동 공간이다.
- 몇십년 동안 생활하던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 ⇒ 16년전에 이사를 왔다. 그때는 집은 크지만 같이 공유하는 삶이 없었다. 공유하는 삶을 살기 위함이 이곳 엘더보리로 오게된 이유다.

□ 노인주택(2)

< 담당자 설명 >

- 이곳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다.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다. 쓰레기 버리는 컨테이너는 별도공간에 놓여있다.

□ 노인주택(3)

< 담당자 설명 >

- 이곳의 주택은 들어올 때 입구의 폭이 보통 덴마크의 일반적인 집보다 넓다. 그리고 목욕탕/화장실의 크기가 크다. 노인주택은 휠체어가 왕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게 덴마크 법이다.

□ 길거리 설명

< 담당자 설명 >

- 이 지역은 큰 지역이다. 30명 19가구가 산다. 건너편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 산다. 이곳과 그곳은 관계가 없다. 호수 건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계신다. 노인주택들이 보통 거주민이 사는 주거지역에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다.
- 쓰레기통 아래는 대형 컨테이너가 있다. 이곳 쓰레기통을 꺼내서 빨아들이는 식으로 꺼낸다.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청소해서 간다. 음식물통과 일반쓰레기 통이 구분되어 있다.

□ 공유 커뮤니티공간

< 담당자 설명 >

- 세탁기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집보다 이곳에 세탁기를 더 많이 이용한다. 거주민인 노인을 보러 많은 가족들이 왔을 때 공동의 공간에서 자는 경우도 많다.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공동식사를 한다.

< 질의 응답 >

-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이정도는 되어야 한다. 어르신들이 사는 자립마을을 직접 소개해주어서 고맙다. (다음에도 방문해주라)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시라. 오래사시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오래 살았다. 하지만 더 살거다.)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 연세가 되면 모여 사는데 30분내에 종합병원이 있어야 한다. 여기도 그런가? 위급한 상황은 어떻게 하는가?
⇒ 급한 경우 심폐소생술로 응급조치를 하고, 근처에 큰 병원이 있어서 바로 앰블런스가 온다. 차로 10분이면 온다. 하지만 앰블런스는 그 병원보다 가까이 있다. 그래서 이곳에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 동료들과 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란다.
⇒ 예쁜 손님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한국에 돌아가서 잘 사용하시기 바란다.
- 여기에 가족이 자주 오는가?
⇒ 집과 전혀 다름이 없다. 나는 딸이 있다. 손자 손녀가 다섯명이고, 증손자는 7명이다. 집처럼 편안하게 방문한다.
-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최근에 어떤 노인이 사시다가 몸이 안좋아져 요양원으로 가셨다. 그래서 집이 비었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심사하는 것은 없다. 리스트 순번이 정해져서 들어온다.

□ 서구의회 의장

- 이렇게 좋은 연수, 서구에서 해야 할 일을 각자가 잘 느꼈을 것이다.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 훌륭하게 잘 배웠다. 배운 것, 보고 느낀 것들을 의원님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것이다.
- 앞으로는 서구 발전을 위해서 민간원장들이 서대석 청장님과 힘을 합쳐서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거다. 저도 의장으로 협조해서 상생하는 서구청과 서구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서구청장

-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라. 세계에 빛나는 우리의 것을 만들자.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완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찾는 것이다. 우리식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갔던 덴마크의 경험을 보는 거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한국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다. 어떤 어려움이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 모른다.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정부가 ‘우리가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길을 찾아서 다른 곳에서 안 하면 우리 서구만이라도 하자. 이 과정에 민관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서 가자.
- 지역에서 어르신이 행복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다. 덴마크에 와서 길가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다. 가족단위로 생활하며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했다. 우리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 처음에는 날마다 가다가 한달에 한번 나중에는 알아보지 못하면 안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 서구만이라도 바꾸어보자. 가족을 자주 만나고 찾아가고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우리 서구가 만들어 가자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

- 저는 비정규직이다. 기관 운영 하시는 분들은 어르신을 더 잘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과정에 좋은 제언, 좋은 이야기 해주시라. 저희들도 노력하겠다. 이곳에서 많이 배우자. 그리고 덴마크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행복을 많이 만들어보자. 아침에 자전거 탔지만 그것도 공부다. 공직자들이 해외에 가서 경험하면 많이 배우는 거다. 너무 유익하고 고맙다.
- 고생하셨다. 함께 해주신 원장님들, 일주일동안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공직자, 송시열 사장님 감사하다. 이번 연수는 특별하게 치매와 관련해서 간 것이 의미가 있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것 점검하겠다. 고생 많이 하셨다.

□ 주민 전문가

- 이런 연수를 처음으로 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노인복지 10년 만에 처음 경험한 일이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감사드린다. 통합돌봄 연수를 함께해주신 모두에게 축복의 큰 박수 부탁드린다.
- 앞으로 덴마크의 노인정책을 배우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을 제안한다. 이곳에는 정책을 준비하는 공무원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함께한다. 이제 시작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서구형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해야 한다. 필요 시 자주 만나지만 정기적으로 3개월에 1회 만나는 모임을 제안한다.

□ 75세 이상 예방형 방문서비스 제공

- 이번 국외출장은 이들이 구축한 시스템을 검토하고 한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5박 7일 방문기간 동안 오펜세 시청을 비롯한 방문지역 모두 의식적으로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이야기했다.
- 현장에서 책으로 또는 웹상에서 이해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해의 핵심은 사람 중심 서비스다.
- 사람 중심 덴마크 통합돌봄의 서비스는 보건과 복지가 효율적으로 통합되었다는 점이다.
 - 덴마크는 사회복지법을 만들어서 당사자 입장에서 서비스를 통합운영 중이다. 서비스 법은 1~2장 개요, 3~4장 예방상담, 5장 사용자 참여, 6~13장 어린이와 청소년, 14~15장 성인, 16~20장 조기에방 노력, 21~23장 보조제품, 24~25장 성인에 대한 자기결정, 25~30장 품질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동법 10조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즉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상담을 받을 기회를 두도록했다. 장기적으로 상담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상담은 예방적 방문으로 실현되고 있다. 어르신 예방적 방문은 14장 제 79조부터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79조에서 개인의 활동 및 예방을 목표로 서비스를 제안하거나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79조의 1에서는 75~81세 주민에게 예방적방문, 82세이상은 년 1회이상 방문, 68세 81세의 사회/신체/정신적 장애인 방문을 제공하도록 했다.
- 17만의 오펜세에는 1.1만명에게 예방형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방문지의 설명에 의하면 월 29만건 1일 만건의 방문상담이 이루어진다. 1만 천명의 재가노인에게 1만 번의 방문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비결은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인력이 모두 공무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현실로 본다면, 주공사업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간호서비스, 보건소의 정신건강

센터,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팀, 노인돌봄의 생활관리사, 장기요양의 영양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 이런 배경에 기반하여 겨우 첫발을 내민 광주서구의 돌봄시스템 발전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위치 기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동시스템을 사용하자. 둘째, 예방을 강화하고 제도와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 75세 이상 노인에게 공공의 방문상담을 의무화하자. 이를 위해서 예방형 방문상담과 기록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만들자. 셋째, 예방형 방문상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규정하고 실천 책임을 부여하자.

□ 재가노인 예방적 방문지침 마련

- 덴마크 사례를 참고하여 서구의 노인 예방적 방문을 위해 제안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자체에서 예방적 방문을 제공하는 목적은 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침을 제공하고 안보 및 복지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지원 옵션을 제공하여 노인을 위한 예방 및 건강 증진 노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 과정의 문제점을 예방하거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존의 조치 및 계획 활성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목적이다.
- 예방적 방문은 노인들이 자신의 자원을 더 잘 활용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기능 수준을 유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 방문은 노인의 요구, 소원 및 자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가 노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가정 방문은 지자체에 지역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더 나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 가정 방문의 일반적인 경험에 대해 시의회에 후속 조치 및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방문에는 노인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되는 체계적이고 전체적인 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과 대화 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노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존엄을 유지하는지, 질병, 증상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가정 방문 시 주요 강조점은 사회적 조건과 기능적 능력을 유지, 증가시키는 것이다.
 - 노인의 일상생활, 복지, 소셜 네트워크, 주택, 재정, 건강 상태, 기능 능력 등을 토론한다.
 - 노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방문을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가정 방문이 외로움, 낙상 방지, 안전, 영양 및 신체 활동 등과 같은 여러 선택된 주제에 중점을 두도록 결정할 수 있다.
 - 대화를 바탕으로 자발적 또는 시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예방 및 활성화 제안을 참조할 수 있다.
 - 방문 후 스포츠 및 네트워킹 활동, 복지 또는 보건 서비스 제공, 음식 및 주택 제공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 노인에게 방문 계획에 대해 알리고 개인 방문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 가정 방문은 개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제공 해야한다.
 - 전화 또는 편지. 시민과의 연락 빈도를 결정은 지자체에서 한다.
 - ‘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접촉 유형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연락을 유지할 것인지 시민에게 연간 첫 방문 제안을 알릴 수 있다.
 - ‘ 전화나 우편의 방법으로 1년에 한 번의 예방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시민에게 알리는 서한을 발송한다.

거주시설 노인을 위한 품질 표준 마련

- 개요
 - 품질 표준에는 광주 서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범위 및 성능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돌봄서비스는 개인 거주자의 상황에 근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주자의 자원에 중점을 두고, 거주자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거주자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
 - 혜택은 광범위한 사회 교육 및 기타 지원 조치다. 예를 들어 지침 안내, 매

일 집안일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 품질 표준의 목적

- 커뮤니티의 일반적인 품질 표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알리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의 목적은 개인 거주자 자신의 조건에 따라 삶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 무엇보다도 노력이 필요하다. 거주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목표로 한다.
- 지원의 목적은 개인 기술의 개발 및 유지 관리일 수도 있다. 주민이 사회의 평범한 서비스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거나 설정하고 일상생활의 구조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지원은 개인의 특별한 소망, 요구 및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 개인과 개인 간 필요 평가에 따라 개인이 일상생활과 다른 주민과의 상호 작용에서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할당한다.
- 학습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교육학 활동은 개인 거주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거주자가 자신의 상황에 최대의 영향을 줄 수 있다.

○ 커뮤니티의 목표

- 주택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좋은 환경이 제공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안식처다. 이 안에 생활하는 노인돌봄의 목표는 주민들이 가능한 최고의 삶의 질로 생활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 노력은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 교육의 목표는 주민의 주도권과 독립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희망과 필요에 따라 지원과 관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 지원에는 또한 주민들의 사회적 관계를 확장 시키거나 최소한 유지하려는 시도도 포함한다.
- 광주 서구는 주민들이 근로 생활, 여가 생활 및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전체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배려. 예를 들어 학습 장애가 있는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배려와 집중적인 지원이 있을 수 있다. 개인 관리는 그 자체로 끝날 수 있다. 돌보는 것은 길고 영원한 과정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과정이 자원과 기술을 유지

하는 반면 다른 주민들은 자신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생명을 보상하고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적인 치료는 즉각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

○ 직원은 준수 사항

- 어르신의 건강 상태 변화가 관찰되면 직원이 의사에게 연락하도록 돕는다.
- 직원은 또한 필요와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관련 기관에 연락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돌봄은 또한 애정을 돌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것, 질병을 앓는 사람을 위한 행동, 수프 등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 일상 업무수행 시 지도, 상담 및 자조 지원 등의 지원은 개인의 필요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개인의 청렴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지원은 개인의 필요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개인의 청렴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원은 개인의 기능 장애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식으로 제공 된다.
- 돌봄은 또한 애정을 돌보는 사람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것, 질병을 앓는 사람을 위한 행동, 수프 등을 만드는 것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다.

○ 일상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상담 및 도움

- 일상 업무 수행 시 지도, 상담 및 자조 지원 등의 지원은 개인의 필요와 전제 조건을 기반으로 해야하며, 개인의 청렴성과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지원은 개인의 기능 장애와 관련하여 전체적인 방식으로 제공된다.
- 학습 장애가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은 일상 기술에 대한 학습 / 재교육이다.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도록 지원한다.

○ 자립과 독립을 위한 지도, 상담, 예방 및 도움.

- 예를 들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 관련자가 일상생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 쇼핑, 요리, 세탁, 우편 읽기, 청소, 쇼핑 목록 작성, 개인위생, 의료 방문 등을 도와줍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개인적인 문제, 갈등 해결 및 도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재무 계획을 위해, 자문 노력은 중요한 요소다.
 - 상담은 예방 효과와 지지 효과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상담은 개인이 즉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교육 활동 및 예방 활동으로서의 교육 및 상담은 예를 들어 물리 치료 및 작업 치료사, 안마사, 정신과 의사와의 학제 간 협력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 사회 교육 훈련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훈련에 대한 자신감과 고유 자원의 개발을 제공하는 것이다.
 - 커뮤니티 직원은 주민 교육을 위해 일반적으로 큰 사회적 교육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육 교육을 받는다.
 - 거주자가 자격, 역량 및 개인 특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연락 담당자를 얻을 수 있도록 일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 거주자들은 거주자와 함께 전체 작업을 조직하기 위해 함께 일하는 연락 담당자가 있어, 거주자가 양호한 개발 조건을 갖도록 한다.
 - 직원은 발달 장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직원은 개별 거주자가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으며 거주자 자신의 역량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주민은 자신의 기회와 한계에 대한 통찰력과 개발 기회 제공에 대한 지원을 받는다.
- 교육 계획의 준비 및 후속 조치
- 지방 자치 단체가 작성한 서면 행동 계획은 거주 지역과 함께 거주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 활동 계획의 목적 및 내용과 함께 생활 공동체가 제공하는 교육 행동 계획에 따라야 한다.
 - 계획은 교육 노력의 목적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지원을 포함한다.
 - 계획에는 또한 거주자와의 계약 및 거주자의 전반적인 교육 노력에 관한 목표 및 하위 목표가 포함한다.
 - 거주자가 지원을 원하는 영역과 지원하지 않는 영역을 설명한다. 행동 계획 준비에 주민의 참여. 교육 계획은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거주자와의 협력 및 참여와 함께 거주자의 전제 조건에 기초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즉, 계획과

- 관련된 작업은 장애와 상관없이 거주자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망과 요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전체 작업 접근 방식을 강화하고 개별 거주자의 대화와 참여를 늘리고 자기 결정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작업에서 공동 작업 및 조정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개인의 노력에 따라 개인의 노력에 맞게 조정한다.
 - 요구 사항 및 생활 상황은 현재 목표와 노력을 명확하게 하고, 장기 목표는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민이 교육 수준에서 후속 조치 내용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공식화된다.
 - 교육 계획은 항상 최신 상태여야 한다. 그러나 계획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 직원은 거주자에게 교육 계획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거주자와 공동으로 계획의 기초는 개인의 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 주민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조직의 이용에 영향을 줄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기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원, 지원 및 지도가 필요하다. 개인의 기능 수준에 맞는 범위와 형식을 가져야 하는 지원은 가능한 한 거주자가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적으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거주자가 사용하는 주거시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용자 영향과 관련하여, 광주 서구는 좋은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좋은 일상생활, 인간의 복지 및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주민들은 대화를 통해 직원의 필요한 도움을 받아 주택 제안의 일반적인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 공동 경제, 연락 규칙, 주택 내부 및 외부 활동 계획, 휴게실 설계, 현장 전통 만들기, 직원 채용 및 기타 여러 일상 문제, 주민 회의, 민주주의와 사용자 영향은 매주 월요일마다 정기적인 주민 회의를 통해 조직되며 모든 주민은 기본적으로 참여한다.
 - 서구의 거주자는 보안 담당자로 주민을 선택했으며, 이 거주자는 관리자 및 직원 보안 담당자와 함께 보안 그룹의 일부이다.
 - 직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 할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지원, 개발 및 장려하고 민주주의를 준수하는 것이다.